

구약논찬

제 17권 2호(통권 40집) 2011년 6월 30일

정 중호(계명대) '하나님의 궤'는 유일한가? 105

본 논문의 목적은, 유일한 '하나님의 궤' 전승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을 통해 숨어있는 다양한 궤에 관한 전승을 밝혀내는 것이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하나님의 궤뿐만 아니라 사울이 전쟁터에서 찾은 또 다른 하나님의 궤가 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또한 단 지파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저자는 다양한 하나님의 궤를 찾을 때 풀어야 할 중요한 단서로서 '하나님의 궤'와 '에봇'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을 제시한다.

Chong, Joong Ho Did Only One 'Ark of God' Exist? 105

‘하나님의 궤’는 유일한가?

정 중호 | 계명대

1. 서론

‘하나님의 궤’는 광야전승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하나의 유일한 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숨어있는 또 다른 전승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삼상 4: 11). 이 궤는 블레셋에서 7개월 간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며 기랏여아림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¹⁾ 하나님의 궤가 기랏여아림에 있었을 동안 사무엘과 사울이 활동하였는데 역대기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대상 13: 3). 또한 시편의 기록을 볼 때(시 132: 6) 이 궤는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주목을 받지 못한 궤였음을 알 수 있다.

1) 삼상 7: 2에는 궤가 20년 동안 기랏여아림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만일 이 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였다면 적어도 50년 이상 기랏여아림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과 사울 시대 전 기간 동안 기랏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때 그 기간을 약 50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궤가 아니라면 20년이라는 숫자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J. Blenkinsopp, “Kiriath-jearim and the Ark,” *JBL* 88 no. 2 (1969), 145쪽.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궤를 찾은 경우가 있었다. 사울이 아히아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다(삼상 14: 18). 이 궤는 무슨 궤인가?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주목을 받지 못한 기랴아림의 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우리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궤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놉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성물’(삼상 23: 6, 9; 30: 7)과 단 지파의 성소에 있었던 ‘성물’(삿 18: 30)이 하나님의 궤일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אֲרוֹן אֱלֹהֵי יִשְׂרָאֵל) 아론 엘로헤 이스라엘’라고 불렀다.²⁾ 블레셋 사람들은 ‘신의 궤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표현은 마치 또 다른 신의 궤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이다. 그래서 디벨리우스(M. Dibelius)와 폰 라트(G. von Rad)는 궤가 가나안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³⁾ 또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전승을 연구한 하르트(R. van der Hart)는 “궤는 기본적으로 가나안인의 현상이었으며 나중에 출애굽 전승에 통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리고 메이(Herbert G. May)는 “많은 궤와 장막이 있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⁵⁾

본 논문의 목적은, 유일한 ‘하나님의 궤’ 전승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을 통해 숨어있는 다양한 궤에 관한 전승을 밝혀내는 것이다.

논문을 전개하기 전에 ‘법궤’라는 용어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궤’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용어는 MT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개역개정에도 ‘법궤’라는 용어는 한 번만 나타나는데(레 16: 2) 사실 ‘궤’라는 의미의 אֲרוֹן(하아론)을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궤(אֲרוֹן אֱלֹהִים 아론 하엘로힘),’ ‘야웨의 궤(אֲרוֹן יְהוָה 아론 야웨),’ ‘언약궤(בְּרִית אֲרוֹן 아론

2) 삼상 5: 7, 8(3회), 10, 11; 6: 3.

3) M. Dibelius, *Die Lade Jahves. Eine 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FRANT 7; Göttingen: Vandenhoeck & Rprecht, 1906), 111-119쪽; G. von Rad, “Zelt und Lade,”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109-129쪽.

4) R. van der Hart, “The Camp of Dan and the Camp of Yahweh,” *VT* 25 (1975), 728쪽.

5) Herbert G. May, “Ephod and Ariel,”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56 (1939), 69쪽.

브리트), '증거케(תְּעֻדָּה לַיהוָה אֱלֹהֵינוּ 아론 하에두트),'⁶⁾ '케(קַיִל אֱלֹהֵינוּ 아론)'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⁷⁾ P에서는 '증거케리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언약케리는 용어는 신명기사가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아웨의 케와 '하나님의 케리는 용어는 신명기사와 역대기사가 문헌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אֱלֹהֵינוּ קַיִל(아론 하엘로힘/하나님의 케)을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할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부를 때는 '신의 케라고 번역할 것이며 아웨 종교의 케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케로 번역하여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케리는 표현은 소위 '케설화(Ark Narrative)'가 나타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⁸⁾

2. 기랏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케

하나님의 케는 광야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케는 길갈에 나타나며(수 5: 10-15), 세겜에도 나타나고(수 8: 30-35), 벳엘에 다시 나타난다(삿 20: 26-27). 그러나 하나님의 케가 이러한 장소에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다.⁹⁾

그리고 하나님의 케는 다시 실로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삼상 3: 3; 삿 18: 31 참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케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하였다가 귀환하였는데 벳세메스를 거쳐 오랫동안 기랏여아림에 머물렀다.¹⁰⁾ 이 이야기는 삼상 7장 1절에서 끝이 났는데 삼하 6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즉, 다윗 왕이 하나님의 케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다.

6) 출 25: 22; 26: 33.

7) '아웨의 케'라는 표현은 82회 나타나는데 주로 신명기사와 역대기에 나타나며 해설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언약케'라는 표현은 40회 나타난다. C. L. Seow, "Ark of the covenant," *ADB*. vol. 1, 386-387쪽.

8) אֱלֹהֵינוּ קַיִל(아론 하엘로힘)'으로 표기된 부분은 삼상 4: 13, 17, 18, 19, 21, 22; 5: 1, 2, 10[2회]; 14: 18[2회]; 삼하 6: 2, 3, 4, 6, 7, 12[2회]; 7: 2; 15: 24, 25, 29; 대상 13: 5, 6, 7, 12, 14; 15: 1, 2, 15, 24; 16: 1; 대하 1: 4, 그리고 אֱלֹהֵינוּ(아론 엘로힘)'으로 표기된 부분은 삼상 3: 3; 4: 11; 대상 13: 3 등이다.

9) 이 경주, "솔로몬 성전과 법케," 『구약논단』 제18집 (2005), 38쪽.

10) 하나님의 케가 블레셋에 의해 탈취 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성경에도 하나님의 케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나타나있다. 즉,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현현하기(출 40: 34-35) 전에 하나님의 케는 이미 회막에 안치되어 있었다는 점(출 40: 20-21)을 지적할 수 있다. 정 중호, "회막 전승의 역동성과 법케," 『구약논단』 제 18집 (2005), 20쪽.

질문의 핵심은 과연 이러한 궤들이 모두 동일한 궤인가 하는 것이다. 광야 전승에서는 하나님의 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출 26: 16) 만나 항아리(출 16: 33)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민 17: 10) 하나님의 궤 앞에 놓여있었다고 전해지며, 히브리어에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히 9: 4).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는 오직 ‘두 돌판’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¹¹⁾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아웨게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다.(왕상 8: 9 = 대하 5: 10)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는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옛날에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다른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로 추정된다. 사실 사독 제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론 제사장만 지지한다는 아론의 지팡이가 궤 안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나중에 없어졌는가? 혹은 과연 이 궤가 광야전승에 나타난 궤와, 혹은 실로에 있었던 궤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어난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소위 ‘궤 설화(ark narrative)’부터 분석해 보기로 하자. 로스트(Leonhard Rost)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궤 설화(ark narrative)’로 이름짓고 그 내용이 삼상 4장 1절 - 7장 1절과 삼하 6장 1-19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그에 의하면 궤 설화는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와 다윗 왕조의 합법성을 위해 다윗 시대 말기 혹은 솔로몬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하였다.¹³⁾ 이러한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캠벨(A. F. Campbell)도 삼상 4 - 6장과 삼하 6장을 모두 ‘궤 설화’로 인정하였다.¹⁴⁾

11)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판들(תַּחֲתָיִם) 하우호트, 출 34: 28)’ 혹은 ‘돌판(אֲבָנֵי הַתּוֹרָה) 루호트 아바남, 신 4: 13)’ 혹은 ‘증거(הַעֲדָוָה) 하에두트, 출 25: 16)’ 혹은 ‘증거판들(הַעֲדָוָה הַתּוֹרָה) 루호트 하에두트, 출 31: 18)’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12) Leonhard Rost,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BWANT 42; Stuttgart: Kohlhammer, 1926) 119-253쪽.

13) 윗글, 36-38쪽.

14) A. F. Campbell, *The Ark Narrative (1 Sam 4-6; 2 Sam 6): A Form-Critical and*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삼하 6장과 삼상 4-6장을 연결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쉬클베르게르(Franz Schicklberger)는 ‘퀘 설화’를 삼상 4장 1절 - 6장 14, 16절로 그 범위를 한정시키고 주전 700년경에 작성되었으며 하나님의 퀘를 중심으로 신학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였다.¹⁵⁾ 맥카터(P. K. McCarter, Jr.)도 원래의 ‘퀘 설화’는 삼상 4-6장에 한정시켜야 하며, 삼하 6장은 다윗 왕이 블레셋에 대해 승리를 거둔 후의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 두 설화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명이 기랏여아림과 비알레우다로 차이가 있고, 제사장도 엘리아살과 웃사와 아효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 상의 설화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사무엘 하의 설화는 다윗 왕과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신학적 설화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살펴볼 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퀘 설화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실로에서 출발하여 블레셋을 거쳐 기랏여아림에 안치된 하나님의 퀘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하나님의 퀘가 동일한 것일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다른 퀘일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

3. 사울 왕국의 ‘하나님의 퀘와 에봇

사울이 하나님의 퀘를 찾은 경우가 있었는데, 진장에서 제사장 아히아에게 하나님의 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삼상 14: 18). 그러나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의 퀘를 찾은 이 장면이 뜻밖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삼상 14장 3절을 참조하고, 또 ‘에봇’으로 수정되어 있는 LXX^h를 따라 ‘하나님의 퀘’를 ‘에봇’으로 본문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LXX^h이 3절과 조화시키기 위해 18절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려운 읽기를 택한다는 본문비평 원칙상(*lectio difficilior*) 이 구절은 ‘하나님의 퀘’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전투 현장에 하나님의 퀘가 있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고대에는 전투가

Traditio-Historical Study, (SBLDS 16;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5), 221쪽.

15) Franz Schicklberger, *Die Ladeerzählungen des ersten Samuel-Buches*, (Würzburg: Echter Verlag, 1973) 211, 224-225쪽.

16) P. K. McCarter, Jr., *II Samuel*,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4) 182-184쪽.

신들의 전투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상 혹은 성물을 앞세우고 전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였다(삼하 5: 21; 11: 11; 15: 24).¹⁷⁾

오히려 삼상 14장 3절에 나타나는 ‘에봇’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라고 번역한 그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에봇을 들고(עֵבֹט וְנָשָׂא 노세 에봇)’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에봇을 들었다’로 되어 있는 사무엘 상의 MT본문을 ‘개역개정’은 계속해서 ‘에봇을 입었다’라고 번역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삼상 2: 28; 14: 3; 22: 18). 에봇은 대체시장이 입는 의복으로도 알려져있다(출 28장, 39장). 그런데 에봇을 들고(삼상 14: 3) 있다면 과연 이 에봇은 무엇인가? 아놀드(William R. Arnold)는 ‘에봇(עֵבֹט 에봇)’은 ‘궤(קַיִ ׀ 아론)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¹⁸⁾ 또한 이러한 주장을 데이비스(Philip R. Davies)가 이어받아 동일하게 주장하였다.¹⁹⁾ 특히 판 데르 토른(K. van der Toorn)과 하우트만(Cees Houtman)은 설득력있게 사무엘상·하에 나타나는 ‘에봇’이 ‘궤’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²⁰⁾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세밀하게 비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에봇이 옷일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세마포 에봇(עֵבֹט עֵבֹט 에봇 바드)’이라는 구절은 사무엘 상·하 외에는 대상 15장 27절에만 나타나는데 역대기 상의 구절은 삼하 6장 14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굳이 ‘세마포’라는 단어를 첨가했을까? 아마도 ‘궤’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단어인 ‘에봇’과 구별하기 위해 몸에 입는 에봇에는 ‘세마포’라는 단어를 첨가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²¹⁾ 삼상 22장 18절에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다. ‘세마포 에봇(עֵבֹט עֵבֹט 에봇 바드)’을 들다라는 구절인데 세마포로 만든 에봇은 ‘입는 것’이지(삼상 2: 18; 삼하 6: 14) ‘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에봇을 들다’라는 구절에 ‘세마포’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삼상 2: 28; 14: 3). 또한 LXX에도 ‘세마포’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삼상 22장 18절의 ‘세마포(עֵבֹט 바드)’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17) 서 명수, “성막과 법궤의 기능,” 『구약논단』 제 18집 (2005), 78쪽.

18) William R. Arnold, *Ephod and Ar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19) Philip R. Davies, “Ark or Ephod in I Sam. XIV. 18?,” *JTS* 26 (1975) 82-87쪽 ; Philip R. Davies, “The History of the Ark in the Books of Samuel,” *JNSL* 5 (1977) 15-16쪽.

20) K. van der Toorn and Cees Houtman, “David and the Ark,” *JBL* 113/2 (1994), 209-223쪽.

21) 윗글, 219쪽.

적합하다.²²⁾

에봇이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들 수 있는 또 다른 물체라는 점은 이미 사사기에도 나타난다. 기드온은 금 1,700세겔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다(삿 8: 26-27).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도 은 이백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삿 17: 3-5). 그리고 단 지파가 이주할 때 이들을 탈취하여 갔다(삿 18: 14, 17, 18, 20). 또한 호세아에도 에봇은 옷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거룩한 물체로 나타난다(호 3: 4).²³⁾ 에봇이 입는 것이 아니라 들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전해 준 어떤 것이라는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윗을 도왔다는 죄명으로 사울이 놈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놈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피하였는데, 이 때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에 있던 다윗에게 왔다(삼상 23: 6).²⁴⁾

삼상 21장 9절에는 놈 성전에 보자기에 싸인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무엇인가 ‘에봇’은 큰 물체이며 칼을 가리울 수 있는 물체임을 알 수 있다.²⁵⁾ 그리고 놈 성전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에봇을 ‘들었다(נָטוּ) 노세)’고 묘사되어 있다(삼상 22: 18). 이처럼 ‘에봇’은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들 수 있는 물체인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에봇과 하나님의 궤 사이의 또 다른 유사점은 제사장의 특권이라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삼상 2: 28)라는 구절에서 에봇을 든다는 것이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특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에봇을 입는 것이라면 제사장의 특권이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윗도 에봇을 입었기 때문이다(삼하 6: 14). 따라서 이 ‘에봇’은 제사장만 들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레위인 제사장을 가리켜 “야웨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신 31: 9, 25)이라 부르고 있으며 신명기사가 부분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22) 윗글, 212쪽.

23)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호 3: 4)”

24) ‘그의 손에(יָדָיו 브야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에봇은 작고 가벼운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때 사용된 ‘יָדָיו (브야도/그의 손에)’는 왕이 많은 예물을 수레에 싣고 왔을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반드시 작은 물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왕하 8: 9).

25) George, Dahl, “The Problem of the Ephod,” *Anglican Theological Review*, 34 no 4 (1952), 208-209쪽.

제사장의 특권으로 나타난다(수 3-4장; 6: 6, 12; 8: 33; 삼하 15: 24). 에봇을 드는 것도 제사장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궤를 메는 것도 제사장의 특권이라는 점은 에봇과 하나님의 궤의 또 다른 유사점이다.

사사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 일천칠백 세겔로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다(삿 8: 22-27). 즉, 에봇은 이미 신앙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과 다윗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기드온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을 사양했지만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리더십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결국 사사로서의 통치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왕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에봇과 하나님의 궤는 통치자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것이다. 다윗이 에봇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삼상 23: 9-12; 30: 7-8). 마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향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과 유사하다.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아웨께 묻는 것은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다. 뻔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출정할지 말지를 아웨께 물었는데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다(삿 20: 27-28). 이처럼 ‘에봇’은 ‘하나님의 궤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심지어 아놀드(W. R. Arnold)는 에봇과 궤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동의어일 때도 있다고 하였다.²⁶⁾ 반 데르 토른(K. van der Toorn)과 하우트만(Cees Houtman)도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에봇’이 사실 하나님의 궤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삼상 2: 28; 14: 3; 22: 18; 23: 6, 9; 30: 7).²⁷⁾ 또한 메이(Herbert G. May)도 궤와 에봇이 유사점이 많으며 에봇은 작은 성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하나님께 물을 때 에봇보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는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26) William R. Arnold, 윗글.

27) K. van der Toorn and Cees Houtman, 윗글, 209-231쪽.

28) Herbert G. May, "Ephod and Ariel," 52쪽; Herbert G. May, "The Ark - a Miniature Temple," *AJSL* 52(1936) 215-217쪽.

퀘 앞에서 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삼상 23장 9절과 30장 7절 문맥에는 에봇보다 하나님의 퀘가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아마도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퀘'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퀘'가 들어 있어야 할 여러 부분이 '에봇'으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퀘의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퀘인 사울의 퀘를 좀 더 추적해보자. 사울이 찾았던 하나님의 퀘가 기랏여아림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사장들의 면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기랏여아림에서 하나님의 퀘를 '지키고(~~now~~ 사마르)'있었던 엘리아살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을 '아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하였는데 나답과 엘리아살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과 동일하다. 따라서 엘리아살은 아론계열 제사장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사울에게 온 제사장 이름은 아히아인데 엘리계열 제사장의 이름이다.²⁹⁾ 엘리의 아들들은 홉니와 비느하스였으며,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히둡이었고, 비느하스의 손자가 아히아였다(삼상 14:3). 만일 엘리아살이 아론 계열 제사장이라면 엘리 계열 제사장인 아히아가 아론 계열 제사장이 지키고 있었던 기랏여아림의 퀘를 메고 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아히아가 메고 온 하나님의 퀘가 기랏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퀘가 아니라는 점은 또 다른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퀘가 기랏여아림에 50여년간 있었을 동안 사무엘과 사울이 활동하였는데 역대기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대상 13:3). 즉, 사울 시대에는 기랏여아림의 퀘를 찾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편 132편에는 하나님의 퀘와 성막을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퀘와 성막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시 132:2-4). 즉, 기랏여아림의 퀘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132편은 그 기원을 가나안에 두고 있는데 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³⁰⁾ 특히 모든 노력을 기울여 찾은 하나님의 퀘 앞에

29) 예언자 아히아도 실로 사람이었다(왕상 12:15; 대하 9:29).

앞드려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시 132편 5-8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5 아웨의 처소 곧 아굽의 전능자의 성막(קֹדֶשׁ מִשְׁכָּן)을 발견하기까지라.
- 6 보라!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아아르의 밭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 7 우리가 그의 성막(קֹדֶשׁ מִשְׁכָּן)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앞드려 예배하리로다.
- 8 아웨여 일어나소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시편에서 '그것'(6절)은 여성형이기에 남성형인 '성막'이 될 수는 없고 남녀공통형인 '궤'이다. 그리고 '아아르'(6절)는 '기랏여아림'의 준 말이다.³¹⁾ 이 궤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 궤를 찾은 감격을 '보라(קֹדֶשׁ חִנֵּנִי)'라는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발등상'은 궤를 가리킨다(시 99: 5). 즉, 이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브라다 지역의 기랏여아림에 있었던 성막과 궤를 찾고 찾다가 어렵게 발견하였고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감격하며 예배드린다는 내용이다. 시편 132편의 기록을 볼 때 기랏여아림의 궤는 사무엘과 사울 시대에 주목을 받지 못한 궤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울이 찾은 궤는 기랏여아림이 아닌 다른 성소에서 메고 온 궤일 가능성이 높다.

사울이 찾은 하나님의 궤가 또 다른 궤였다면 이 궤는 어느 성소에 있었던 궤일까? 우선 궤를 메고 온 아히야가 엘리게열 제사장인데 놈의 제사장도 엘리게열 제사장이었다. 즉, 놈 제사장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엘리게열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놈 성소는 '제사장들의 성읍'(삼상 22: 19)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의 보물인 골리앗의 칼도 있었고 진설병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놈 성소가 사울 시대에 국가적 중심 성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 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놈성소의 제사장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다면 하나님의 궤는 놈에 있었던 궤일 것으로 보여진다. 블렌킨숍(J. Blenkinsopp)도 진설병이 놈 성소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님의 궤가 놈 성소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³²⁾ 아마도 놈은 기브온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

30) F. M. Cross는 시 132편의 기원을 가나안에서 찾았다;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94-96쪽.

31) 윗글, 94-95, n. 16.

며 솔로몬이 제사드렸던 ‘큰 산당(왕상 3:4)이 바로 놉 성소였을 것으로 보인다³³⁾ 따라서 하나님의 궤가 놉에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와 성막이 놉 성소에 잠시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³⁴⁾

놉 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면 사울의 학살을 피해서 놉 성소에서 도피하여 다윗에게 온 아비아달이 들고 온 것이 하나님의 궤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왔다고 했는데, 만일 에봇과 궤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단어라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온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특히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합세했던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추방할 때 아비아달이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한 점을 들면서 주 아웨의 궤를 메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왕상 2:26)을 감안할 때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아웨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왕상 2:26)

이러한 주장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다.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녔는가하는 질문이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피할 때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에게로 나왔다. 이 때 아비아달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다(삼하 15:24). 그런데 다윗은 사독에게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라고 했다. 이 때도 아비아달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다(삼하 15:25). 다윗의 명령에 따라 사독은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갔는데 이 때 아비아달의 이름이 함께 나타난다(삼하 15:29). 주목할 점은 궤를 도로 ‘돌려놓았다(נָתַן, 야사브)’는 단어가 단수라는 점이다.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타나

32) J. Blenkinsopp, *Gibeon and Israel: the role of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early Israel*,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Monograph Series, 2;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72), 66쪽.

33) 윗글, 67-68쪽; Diana V. Edelman, “The Rise of the Israelite State Under Sau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6) 224-225쪽.

34) *b. Zeb*, 118-119쪽.

35) K. van der Toorn and Cees Houtman, 윗글, 227-228쪽.

기는 하지만 사독의 역할이 시종일관 전면으로 나타나며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으로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할 때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녔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4. 단 지파의 궤

단 지파는 소리와 에스다올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 가까이 거주하였다(삿 18: 2). 그런데 단 지파는 그 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 갈릴리 북쪽 리이스(단)까지 이주하여 재정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이주 과정에서 이상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사기 18장 말미에 “단 지손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לְיָמֵינוּ יִגְלוּתָהּ; 아드-욘 겔로트 하이레츠)”(삿 18: 30) 거기서 살았다는 표현이 나타난다. 땅이 사로잡힌다는 표현은 여기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개역개정’에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백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의역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이 구절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לְיָמֵינוּ(에레츠/땅)를 לְיָמֵינוּ(아론/궤)의 오류로 보고 수정하였다.³⁶⁾ 수정된 본문을 번역하면 “그 궤가 사로잡히는 날까지”로 읽을 수 있다.

만일 단 지파에 궤가 있었다면 그 궤는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해안 가까이 있었던 단 지파의 영역에 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단 지파와 궤가 연결되는 점이 있다는 또 다른 단서는 ‘마하네-단(מַחֲנֵה דָן)’이라는 용어이다. ‘마하네-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진영’ 혹은 ‘진(camp)’이라는 뜻의 ‘마하네’라는 용어가 들어있는 이것이 지명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아웨의 성막을 가리키는가 하는 점이다. 판 데르 하르트(R. van der Hart)는 설득력 있게 ‘마하네-단’이 ‘아웨의 진(Camp of YHWH)’ 즉, 회막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³⁷⁾

‘마하네-단’은 단 지파의 600명 용사가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인데 기랴여아림 뒤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삿 18: 12). 또 다른 곳에는 ‘마하네-단’이 ‘소리와

36) C. F. Burney, *The Book of Judges*, (London, 1918) 415쪽; J. Blenkinsopp, *윗글*, 77쪽.

37) R. van der Hart, *윗글*, 727쪽.

에스다울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삿 13: 25). 삼손이 이 곳에서 아웨의 영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장소다(삿 13: 25). 만일 ‘마하네-단’이 지역 명칭이라면 동일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따라서 ‘마하네 단’이 지역 명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마하네 아웨’라는 구절이 있다(대하 31: 2). 이것은 성전 혹은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 문에서 섬기며 찬송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만일 텐트라면 당연히 ‘마하네 아웨’는 회막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하네 단에서 삼손이 아웨의 영에 의해 움직였다면(삿 13: 25) 당연히 아웨의 영이 계시는 곳인 ‘단 지파의 성소’ 혹은 ‘단 지파의 회막’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용사들이 기랏여아림에 진을 친 곳을 ‘마하네 단’이라 했는데 ‘곳’(삿 18: 12)으로 번역한 단어는 ‘**מָקוֹם**(마콴)’이다. ‘마콴’은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성소’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카울리(A. Cowley)는 ‘마콴’이 현대 아랍어의 ‘성소’라는 뜻의 ‘무콴’이라는 단어와 상응하는 용어라고 하면서 고대에는 ‘성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⁸⁾ 구약의 여러 곳에서 ‘마콴’이 ‘성소’라는 뜻으로 나타나는데(창 13: 3; 28: 11, 16, 19; 신 12: 13, 14), 특히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로 나타난다. 그리고 실로 성소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나타나며(렘 7: 12),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한다(렘 7: 14).³⁹⁾ 따라서 삿 18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성소를 마하네 단이라 부른다. 보라! 기랏여아림 뒤에 있다.

마하네단이 성소라면 블레셋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과는 어떤 관계인가? 동일한 성소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성소인가? 판 데르 하르트(R. van der Hart)는 하나님의 궤가 머무른 곳인 여호수아의 밭과 기랏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 마하네 단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성소일 가능성이 높다.

38) A. Cowley, "The meaning of **מָקוֹם** in Hebrew," *JTS* 17 (1916), 174-176쪽.

39) L. E. Browne은 왕하 5:11의 ‘**מָקוֹם**(마콴)’도 성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 E. Browne, "A Jewish Sanctuary in Babylonia," *JTS* 17 (1916), 400쪽.

40) R. van der Hart, *윗글*, 726쪽.

예언자 미가는 기랏여아림에 여러 개의 성소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미가는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기를 폐허가 되리라고 하였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 3: 12)

마지막 구절 '수풀의 높은 곳'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 수풀의 높은 곳은 여전히 숲인데 폐허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단어들은 **גומא** (바모트 야아르)인데 '야아르'는 '기랏여아림'의 준말로 볼 수 있고(시 132: 6), '바모트'는 산당들 즉, 성소들이다. 성전의 산이 기랏여아림의 성소들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왜 여기서 기랏여아림의 성소들이 등장하는가? 미가가 예언하던 당시에 통치자였던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 때문에 지방의 성소들을 폐쇄시키고 제의를 예루살렘으로 집중시켰다. 이 와중에 기랏여아림의 성소들도 폐쇄된 것으로 짐작된다. 혹은 산헤립 침공 때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폐허가 된 기랏여아림의 성소들처럼 예루살렘도 그와같이 폐허가 되고 무더기가 되리라는 심판예언이다.

기랏여아림에는 오랫동안 여러 성소들이 있었고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후일 예레미야와 같이 아웨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예언자 우리아의 출신지가 기랏여아림인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렘 26: 20-23). 기랏여아림을 바알의 여성형의 단어를 사용하여 **באלת** : **באלת** (바알레 예후다, 삼하 6: 2)라고 부른 것도 종교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어울리는 도시 이름이다.⁴¹⁾

기랏여아림의 여러 성소들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했던 것이다. 하나의 성소, 하나의 궤만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러 성소에 각각 다른 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마하네 단에 있었던 또 다른 궤는 단 지파가 옮겨갔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단 지파가 이주하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에봇을

41) 비록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이 종교중심지로 부상하였지만 압살롬이 헤브론 성소를 언급한 것이라든가(삼하 15: 7-8),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 지방 성소들이 종교중심지 역할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탈취하여 갔다(삿 18: 17-20). 이 때 레위인 제사장이 단지파와 합류하여 북쪽으로 갔는데 그 제사장은 모세계열 제사장으로 전해져 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숨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삿 18: 30). 만일 에봇이 퀘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단어라면 이 사건 속에서도 퀘가 단으로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퀘를 지킬 수 있는 레위인이 함께 하였기에 단 지파가 탈취한 에봇이 하나님의 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 결론

하나의 ‘하나님의 퀘’가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본 논문에서 추적해왔다. 광야전승에서부터 시작되어 실로 성소와 블레셋 지역을 거쳐 기랴여아림에 머문 하나님의 퀘, 그리고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퀘, 사울이 찾은 하나님의 퀘, 단 지파의 하나님의 퀘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당시의 종교상황을 살펴볼 때 다양한 하나님의 퀘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양한 하나님의 퀘를 찾을 때 풀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퀘’와 ‘에봇’이 상호교환할 수 있는 용어라는 점이다. 구약은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퀘’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타의 하나님의 퀘를 에봇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삼상 14: 18).

사울이 전쟁터에서 찾았던 하나님의 퀘, 즉, 제사장 아히야가 메고 온 하나님의 퀘는 기랴여아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놉 성소의 하나님의 퀘였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놉 성소의 제사장이 엘리게열의 제사장들인데 아히야가 엘리게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울 시대 놉 성소는 국가의 중심성소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비아달이 도피중인 다윗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퀘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 지파의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퀘는 단 지파가 머물렀던 기랴여아림의 마하네 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하네 단은 지명이 아니라 성소인 것으로 보이며 기랴여아림에 있었던 다양한 성소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 지파의 하나님의 퀘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성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참고문헌

- 서명수, “성막과 법궤의 기능,” 『구약논단』 제 18집 (2005), 73-83쪽.
- 이경숙, “솔로몬 성전과 법궤,” 『구약논단』 제 18집 (2005), 30-52쪽.
- 정중호, “회막 전승의 역동성과 법궤,” 『구약논단』 제 18집 (2005), 14-29쪽.
- Arnold, William R., *Ephod and Ar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 Blenkinsopp, J., *Gibeon and Israel: the role of Gibeon and the Gibeonites 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of early Israel*, (Society for Old Testament Study Monograph Series, 2;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72).
- _____, “Kiriath-jearim and the Ark,” *JBL* 88 no 2 (1969), 143-156쪽.
- Browne, L. E., “A Jewish Sanctuary in Babylonia,” *JTS* 17 (1916), 400-4001쪽.
- Campbell, A. F., *The Ark Narrative (1 Sam 4-6; 2 Sam 6): A Form-Critical and Tradition-Historical Study* (SBLDS 16;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5).
- Cowley, A., “The meaning of **יָרֵיחַ** in Hebrew,” *JTS* 17 (1916), 174-176쪽.
- Cross, Frank Moore,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1973)
- Dahl, George, “The Problem of the Ephod,” *Anglican Theological Review* 34 no 4 (1952), 206-210쪽.
- Davies, Philip R., “Ark or Ephod in I Sam. XIV. 18?,” *JTS* 26 (1975) 82-87쪽
- _____, “The History of the Ark in the Books of Samuel,” *JNSL* 5 (1977) 15-16쪽.
- Dibelius, M., *Die Lade Jahves. Eine 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FRANT 7; Göttingen: Vandenhoeck & Rprecht, 1906)
- Edelman, Diana V., “The Rise of the Israelite State Under Sau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6).
- Gutmann, Joseph. “History of the Ark,” *ZAW* 83 no 1 (1971), 22-30쪽.
- May, Herbert G., “Ephod and Ariel,”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56 (1939), 44-69쪽.
- McCarter, Jr. P. K., *II Samuel* (Garden Cuty: Doubleday & Company, Inc., 1984).
- Morgenstem, Julian, “The ark, the ephod, and the ‘tent of meeting,’” *HUCA* 18 (1943-1944), 1-52쪽.
- Rost, Leonhard, *Die Überl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BWANT 42; Stuttgart: Kohlhammer, 1926).
- Schicklberger, Franz, *Die Ladeerzählungen des ersten Samuel-Buches* (Wirzburg: Echter Verlag, 1973).
- Seow, C. L., “Ark of the covenant,” *ADB*. vol. 1, 386-393쪽.
- van der Hart, R. “The Camp of Dan and the Camp of Yahweh,” *VT* 25 (1975), 720-728쪽.

van der Toorn, K. and Houtman, Cees, "David and the Ark," *JBL* 113/2 (1994), 209–223
쪽.
von Rad, G., "Zelt und Lade,"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검색어

하나님의 궤
에봇
기랏여아림
마하네 단
단 지파

Did Only One 'Ark of God' Exist?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is project has shown the existence of not only one, but several 'arks of God'. These include the ark of the wilderness tradition, which traveled from Shilo to Philistine and finally Kirjathjearim; the ark transported from Baale-judah to Jerusalem by King David; the ark Saul ordered the priest Ahijah to bring; and the ark of God owned by the tribe of Dan. In particular, we find the existence of several different arks of God highly probable given the

religious context of the period.

Key to the existence of multiple arks is the interchangeability of the terms 'ark of God' and 'eboth'. We find evidence in the Old Testament where 'eboth' has been substituted for other arks of God(1 Sam 14: 18).

The ark which Saul ordered to bring on the battlefield, the ark which the priest Ahijah bore back was not from Kirjathjearim but appears to be the ark of the sanctuary of Nob.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priest of the sanctuary of Nob was, like the priest Ahijah, of the Elide Priests. It appears that Abiathar took this ark of God when he went to David in escaping.

Also, the ark of God in the sanctuary of the tribe of Dan appears to be connected to the Mahaneh-Dan of Kirjathjearim, where the tribe of Dan encamped. Mahaneh-Dan appears to be a sanctuary rather than an area, one of several sanctuaries in Kirjathjearim. Also, the ark of the tribe of Dan also appears related to the ark of God in the sanctuary of Micah in the mountains of Ephraim.

Key Words

Ark of God

Ephod

Kiriathjearim

Mahane-Dan

Dan

■투고일: 2011년 4월 1일

■심사일: 2011년 4월 5일

■게제확정일: 2011년 5월 8일